

저탄소녹색성장정책과 녹색생활양식, 가족에 대한 실천적 함의와 전망*

The Low Carbon & Green Growth Policy and Green Life-Style,

The Practical Implication and Vision on Family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최연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부교수 성미애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 Younshil Choi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Miai Sung

◀ 목 차 ▶

I. 문제제기

II.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 사회적 배경

III. 저탄소녹색성장정책과 생활혁명

IV. 녹색생활양식과 가족

V. 결론을 대신하여: 가족과 녹색

생활양식의 비전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firstly to explore the practical implications that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policy, which is at the top of the Government's agenda provides to family, and secondly to propose some visions for a future based on those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a global perspective, there is now a worldwide trend towards the adoption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policies. Secondly, the Government-driven 'green growth policy' demands a total transformation, that is, revolution, not only in terms of our industries, but also in terms of our mentality and ordinary life. Thirdly, the driving force for this life revolution lies in having green life style, and the family is the primary agent for making the green life style a practical reality.

주제어(Key Words) : 저탄소녹색성장정책(low carbon and green growth policy), 생활혁명(life revolution),
녹색생활양식(green life-style), 가족(family)

Corresponding Author : Younshil Choi,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7 Hongjidong, Chongrogu, Seoul, 110-743, Korea
Tel:+82-2-2287-5317 E-mail:yschoi@smu.ac.kr

* 이 논문은 2009년도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기초로 한 것임.

토속적이고 방대하지 않으며 친밀하고 자연적이며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들로 인해 우리는 혼란스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는 대자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돈이나 기술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며 또 자연 그 자체의 힘이라는 것이다.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오래된 미래>에서 -

I. 문제제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화석 연료 사용 증가 및 이에 따른 탄소 배출 확대에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대응이 최우선 국제 의제로 부각됨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이후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녹색성장이라고 표기함)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녹색성장이란 '환경(Green)' 과 '경제(Growth)' 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녹색(환경) 과' 성장(경제) 을 양립시켜 균형을 잡고 공동목표로 추구한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기술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으로 파악한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이 점에서 현 정부는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생태)근본주의와 성장(개발)지상주의의 모드를 극복하고, 사회 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존과 친화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존 및 친화를 내포하는 통합형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및 자원효율화기술, 환경오염저감기술 등 녹색기술에 기반한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하여 경제·산업구조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발전 전략"이다(강성진, 2009a; 강성진, 2009b; 미래기획위원회, 2009). 이를 다시 표현하면, 녹색성장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녹색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앞으로 다가올 탈석유 시대에 대비하는 신국가발전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신의순, 2008). 국무회의 보고자료(2008. 9. 17)에 의하면, 정부는 이와 같이 녹색성장을 에너지, 환경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 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신국가발전을 이루며,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의 주요 축인 생활혁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인식 변화와 녹색생활 실천 촉진을 위한 미래세대 녹색성장 교육(교재, 프로그램 개발 등)과 전국민용 녹색성장교육프로그램(시민강좌, 방송교육, 주민자치회 등)을 확대한다. 둘째, 주거, 소비, 운전 등 의·식·주 생활양식의 근본적 변화 유도를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녹색소비 등 녹색생활실천의 조직화, 자발적 실천활동에 대한 포인트 및 세계 혜택 등 인센티브의 제공, 녹색생활 수칙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국민 참여 기반의 조성, 탄소라벨링 및 그린스토어 확대 등 녹색 소비의 활성화를 실시한다. 셋째, 재생에너지, 자전거, 자연생태, 문화, 자원순환, 친환경유기농 중심의 녹색마을 만들기(가칭 녹색마을운동)를 전개하며, 습지, 갯벌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www.greengrowth.go.kr).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녹색성장이 하나의 사회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은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있고, 이는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 제시가 일반인들에게 체감 되어 이들이 자발적으로 '녹색 생활양식(green life-style)' 을 실천해 가려는 의지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먼저 이전의 생활양식에 대한 성찰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 로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은 산업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녹색성장이 부각되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자연 친화, 느림, 천연 재료, 전통에 대한 재인식,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이 상정성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삶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자체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즉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강조되었던 성장, 발전 위주의 삶에 대한 성찰적 반성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 타자에 대한 배려, 공존의 규칙 개발, 세대 간 지속성 확보, 환경과의 조화, 인간과 자연 및 우주와의 전체성에 대한 통찰 등 이전 사회에서 간과되어왔던 화두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돌아 볼 것이 요구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요구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고도 전하면서 대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나 삶의 양식을 모색해가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녹색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은 바로 이러한 녹색생활양식이 기본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터전이며, 가족은 그러한 녹색생

활양식을 효과적으로 주도해낼 수 있는 주체적인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생활과학내에서의 논의와 학문적 접근은 주로 소비, 의·식·주생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가족 영역 내에서의 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한 단계이다. 현재 전 세계, 전 국가적 차원에서 녹색성장이 핵심적 의제로 부각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차원에서의 반응과 대처도 기민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가족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과 논의가 시급하고도 절실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직까지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과 가족과의 접점 모색을 통해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 영역과 연관된 녹색생활양식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이론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이러한 작업을 통해 녹색성장과 가족을 연결시키는 후속담론의 생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본 논문은 시론적(試論的) 성격을 지니는 이론적 연구로서, 녹색성장을 가족생활과 연관시켜, 이러한 녹색성장이 가족(가정)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한 가족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가족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시킨다. 하나는 직접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녹색성장과 관련된 가족의 위치나 역할 등을 다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차원에서 녹색성장이 가족에게 시사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전자는 다소 실제적, 구체적이고, 후자는 보다 선언적, 추상적인 성격을 띤 논의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녹색성장정책과 녹색생활양식이 가족에 던지는 실천적 함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녹색성장정책이 가족 안에서 녹색생활양식으로 구현되는 상황에 대한 전망을 구성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 정책이 등장하는 사회적 배경은 어떠한가?

둘째, 녹색성장정책은 어떻게 생활혁명과 연결되는가?

셋째, 녹색생활양식과 관련된 가족의 실천적 역할과 위치는 어떠한가?

넷째, 녹색생활양식이 구현되는 가족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II.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 사회적 배경

현재 전 세계는 공통적으로, 인류 삶의 안전과 질을 위협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의 큰 위기인 환경위기와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된다. 환경위기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대변되어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왔으나 현재에 이르러 그 위기의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제위기는 환경위기보다 더 명료하게 진행되어 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는 상황에 있다(홍승아, 2009).

전 지구적 위기에 즈음하여,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현재의 시대를 ‘에너지기후시대(E.C.E.: Energy-Climate Era)’라고 규정한다. 그는 세계가 경험하는 특징을 지구온난화, 정보기술의 발달, 인구증가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지구를 “뜨겁고(hot)”, “평평하고(flat)”, “붐비는(crowded)” 세계의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결과 지구는 소비주의의 극치인 미국식 생활양식의 동경 및 확산, 석유 독재(테러리즘의 지원), 지구 이변 및 기후 변화, 에코시스템의 붕괴 및 생물다양성의 감소, 에너지 빈곤 등을 경험한다(Friedman, 2009)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전 세계는 녹색산업에 기반을 둔 녹색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녹색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지속적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거론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교토의정서 같은 기후변화협약 가입에 적극적인 입장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풍력·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이것의 세계적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예상된다. 둘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은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은 원가절감 방법 중의 하나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셋째, 고유가 추세가 꺾이고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선진각국, 예컨대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은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최근 유럽연합은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제도와 항공기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규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쿨 어스(Cool Earth)’(2007년 5월), ‘클린 아시아 이니셔티브(Clean Asia Initiative)’(2008년 6월), ‘후쿠다비전’(2008년 6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권순우 외, 2008). 사실상 녹색성장은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계적 움직임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녹색성장을 연관시킬 수 있는 논의는

1969년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 채택한 새로운 강령인 지속가능성에서 더듬어 볼 수 있다(강성진, 2009b). 그 후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발표한 『우리공통의 미래(Our Common Future):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하여』라는 보고서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녹색성장은 2000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처음 거론되었고, '다보스포럼'과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등을 거치면서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개념이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구체적인 발전전략으로 채택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녹색성장이라 지칭하였는데, UNESCAP(2006)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보다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란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윤순진, 2009에서 재인용).

2005년 '제5차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는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사회이사회(UNESCAP)'와 우리나라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는데(이상현, 2008), 이는 한국의 압축적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 훼손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강성진, 2009b). 이 회의에서 논의의 중심은 빈곤해결을 위해 성장할 필요가 있는 아·태지역 저개발국가들이 '경제성장'의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였다(김은경, 2009). 이 논의의 과정에서 아·태지역내 저개발국가들이 경제성장과정에서 환경의 질을 저하시켜 온 선진국들과 달리 당면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상생방안을 모색하도록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녹색성장 개념은 환경 자체의 보호나 사후처리 방식(오염 처리 등)보다는 성장방식을 녹색화 하자는 것이었다. 즉, 현재의 성장방식은 생태적 수용가능성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최소한의 기초 수요를 만족시키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

한 곳이지만, 동시에 생태적 수용능력도 상당히 취약한 지역으로서, 결국 생태적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성장의 핵심적 개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동시에 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성(Eco Efficiency: EE)'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방식은 시장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적 비용을 시장가격에 내부화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환경세 혹은 환경친화적 세제개혁 등을 통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이상현, 2008).

녹색성장이 어떠한 범주와 차원에서 다루어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문서에 따라 국정과제, 비전, 혹은 패러다임으로 불리고 있다. 원래 녹색성장이란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를 두었지만, 이 두 개념은 적용대상이나 배경, 지향하는 목표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윤순진, 2009), 태생적 배경을 고려하게 되면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세계에서 빈곤지역으로 꼽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실용적인 성장전략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면, 원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지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새로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경제적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현실적인 요구를 감안하면서도 전지구적인 차원에서의 환경보존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새롭게 부각된 측면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사회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을 적극적인 정책 아젠다로 선택해야할 기대와 압력, 책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 사회적 배경은 단지 한국사회에서의 국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추세에 부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상 정립과 생존을 위해 선택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생태효율성이란 GDP 1,000달러당 에너지투입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산식으로는 생태효율성=환경비용(Environmental Cost)/경제산출물(Economic Output)로 나타낸다(윤순진, 2009, p. 224).

Ⅲ. 저탄소녹색성장정책과 생활혁명

1. 현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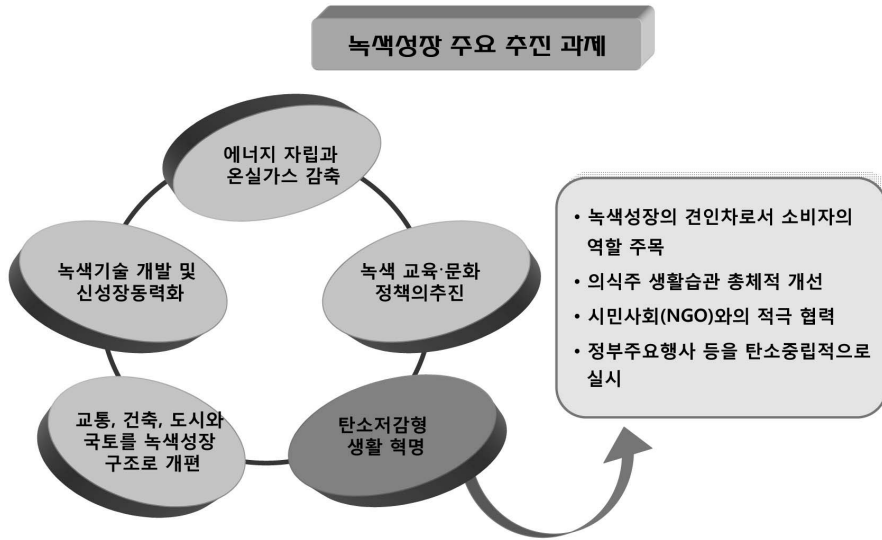
현 정부는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심화라는 문명사적 위기감에 대한 대처,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에 대한 극복 노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의 창출이라는 필요성의 차원에서 녹색성장을 구상하였다. 즉, 녹색성장은 현 정부가 에너지·기후 변화에의 대응전략, 선도형 성장전략을 위해 채택한 중장기 국가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와 같이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가시화된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건국 60주년' 기념 8.15축사에서 이를 다가올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2008년은 '저탄소사회로 가는 원년'으로 선포되었고, 2009년 1월에는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이 발표되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입법예고되었다. 뒤이어 2월에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가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한 2008년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로서는「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제4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2012)」、「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등의 국가계획과「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 전략」、「녹색뉴딜방안」등이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핵심국정과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차원에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장 총칙 제1조)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저탄소라 함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제1장 총칙 제2조 1항)”고 밝히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



자료: 신의순(2008)을 기초로 저자 재구성.

〈그림 1〉 녹색성장의 주요추진과제

2) 탄소집약도는 GDP 1,000달러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구하는데 생태효율성 개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윤순진, 2009, p. 224).
 3)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 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제1장 총칙 제2조 3항).
 4)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제1장 총칙 제2조 4항).

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제1장 총칙 제2조 2항)고 제시하고 있다(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09. 2. 25).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3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신의순, 2009). 첫째,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 자원 사용량을 최소화한다. 둘째, 동일한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되, CO2 배출 등 환경 부하를 최소화한다. 셋째,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결국 정부가 말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생태효율성과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²⁾를 높이는 방향의 성장방식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녹색기술’³⁾과 ‘녹색산업’⁴⁾에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윤순진, 2009).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주요과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너지자립과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화, 교통·건축·도시·국토의 녹색성장 구조로의 개편, 탄소저감형 생활혁명, 녹색교육·문화정책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탄소저감형 생활혁명’이다. 즉 탄소 발생을 낮추고 녹색성장을 이루는 것은 에너지 및 기술 부문과 산업부문, 국가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민자본의 ‘생활에서의 근본적인 변화와 의식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을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체는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생활혁명도 결국 가족이나 가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담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궁극적으로 가족이나 가정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활 속에 녹아드는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탄소저감형 생활혁명의 추진과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녹색성장의 견인차로서 소비자의 역할 주목, 의·식·주 생활습관의 총체적 개선, 시민사회(NGO)와의 적극 협력, 정부 주요행사 등을 탄소중립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거론한다(신의순, 2008). 이러한 생활혁명의 추진과제는 상당한 부분이 가족이나 가정이 주체가 되어 실현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즉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를 생활에 밀착시켜 실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의 정책 추진은 가족이나 가정의 역할과 실천에서 그 접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상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단순히 에너지, 산업, 일자리 같은 물질적 측면의 문제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삶의 근본을 ‘녹색’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이러한 근본적인 변혁으로서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무엇

보다도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이나 가정 차원에서 의 인식이나 각성에 출발할 때 현실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며, 본격화된 의미의 ‘생활혁명’으로서 정착되는 것이라고 보인다.

2. 녹색생활혁명과 생활양식 패러다임의 전환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세계적으로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에 이은 ‘녹색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식으로 말하자면, 이는 ‘제4의 물결(The Fourth Wave)’에 해당되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환경의 악화, 에너지, 안보 확보의 필요성,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의 확보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에너지 절약이나 신기술 개발의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가히 ‘녹색생활혁명’이라고 칭할 수 있는 생활 전반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기반을 둔 녹색생활문화와 녹색생활양식은 의·식·주와 사고방식, 행동 등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터전은 바로 일상이 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개인이 매일 매일 살아가는 방식이 생활문화이며, 사회적으로 보면 일상은 그 사회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심영희, 1996). 하버마스는 생활세계를 물질적 생산을 하는 체계와 대응하는 것으로서 상징적 재생산을 주로 하는 것으로 지칭한다. 그의 ‘내적 식민화 테제’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체계와 생활세계로 이원적으로 분리되고, 체계의 작동 논리가 생활세계에서의 행위양식의 논리에까지 침투함으로써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이러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현상은 경제 및 국가라는 하부체계가 자본주의 성장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에 더욱 깊숙이 침입하는 것을 말한다(김창호, 1996; 심영희, 1979).

이렇게 하버마스 식으로 우리나라의 생활문화를 본다면, 한국사회는 어느 사회에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근대화를 이루면서 성장, 발전, 물질, 속도라는 체계의 논리가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함으로써 일상 또한 이러한 논리에 매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임현진과 이재열(2006)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을 ‘돌진형 근대화(rush-to-modernization)’로 명명하였다. 즉 짧은 시간동안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장지상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부각시켜 왔으며, 고속성장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여유로운 소비사회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빈번한 산업재해와 환경파괴를, 그리고 연이은 대

형참사를 낳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이 중적 복합위험사회’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전후좌우를 끌고루 살피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질주하는 일면적 사고방식 속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도구주의적 태도가 만연하고, 현재의 우리에게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미래에 대한 무관심은 저출산이나 결혼기피에서 보듯이 부메랑처럼 사회의 근간을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의 결여와 극심한 환경오염 등도 우리 사회의 위협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의 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활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생활문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개혁이 달리는 차의 바퀴를 바꾸는 것처럼 어렵다고는 하지만, 영국의 신경경제단(NEF)에서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탄소발자국(환경오염지표) 등으로 평가한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면, 143개국 중 우리나라는 68위를 차지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 7. 6.). 또한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 순위(2005~2006년 판)를 보면 11위(21.9명)(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suicide_rate)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46만9천 명을 넘고 2005년 42만 명 수준에서 4년 사이 4만 명 이상이 늘었으며, 특히 70대 이상 진료인원이 2008년 78,291명으로 2007년 70,406명에 비해 11% 가량 늘어나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경향신문, 2009. 10. 10)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지표를 개선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건대, 성찰과 통찰, 자기각성에 기반을 두는 이러한 새로운 생활양식 패러다임의 돌파구는 바로 녹색성장 속에서 찾을 수 있고, 가족이나 가정은 일상성을 바탕으로 그 핵심에 위치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녹색생활양식과 가족

다음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녹색생활양식과 가족을 관련시켜 논한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차원에서 녹색생활혁명이나 녹색생활양식을 실행하는 주체로서의 가족을 다루며, 두 번째는 간접적인 차원에서 녹색성장이나 녹색생활양식이 가족에게 시사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게 될 것이다.

1. 가족, 녹색생활양식 실행의 주체

가족은 녹색생활양식의 주체이다. 그것은 일상적인 생활

현장에서 녹색생활혁명의 배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이는 반드시 저탄소 녹색성장이 현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이고 국정과제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녹색성장이나 녹색생활혁명의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정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주의 생활양식이나 현대인의 소외되고 원자화된 삶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나 반성을 요하는 것과 맥이 닿기 때문이다.

녹색생활양식 실현의 주체로서 가족이나 가정의 역할은 두 측면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보다 큰 범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녹색성장의 정신을 반영한 녹색생활양식을 가정생활 전 영역에 걸쳐 실천하는 역할이다. 다른 하나는 보다 한정적인 범위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소비단위로서 가계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업이나 사회, 나아가 국가의 정책방향을 수행하면서도 선도해내는 역할이다.

앞에서도 강조한 소비적 삶의 양식을 반성하고 녹색가치를 추구하는 상징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 차원에서 녹색생활양식을 가정생활 전 영역에 걸쳐 실천하면서 가정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배순영(2009)은 가정이 기후변화 등의 대응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위치나 역할로 인해 가정에서의 녹색생활혁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정에서의 탄소 배출은 국가 전체 탄소배출의 약 11.3%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다수 가정이 살고 있는 도시의 경우로 국한하면 이는 전체 탄소배출의 약 50%에 육박하게 된다. 특히 화력에너지체계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나 산업구조의 개편은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상 변화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에 비해 가정의 녹색생활은 보다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즉, 우리 가정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 웰빙 가치의 추구, 슬로우 문화의 보급, 미래 세대의 복지 모색 등과 연관시킬 때, 가정의 탄소 배출은 적극적, 자발적인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증적으로, 배순영과 고은경(2009)의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의 달성을 위한 핵심주체가 국가(41.8%) 다음으로, 기업(19.1%)보다 앞서 국민(36.4%)이 거론된 바 있으며, 이는 국민 개인도 의식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이 속한 가정의 역할과 연계시키는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녹색생활양식의 실제적·실천적 차원에서 가정의 가족이나 가정이 수행하는 역할은 정부가 주요추진과제에서 제시한 ‘의식주 생활습관의 총체적 개선’(<그림 1> 참고)에서 더욱 조명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생활 속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확대, 에너지·물 사용 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줄이기 등의 생활양식 변화를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비주체로서의 가족의 역할도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한다. 소비자는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서의 주요추진과제인 '탄소저감형 생활혁명'과 관련하여(그림 1) 참고, '녹색성장의 견인차'로서의 역할로 주목받는다. 예컨대, 소비자는 에코라벨링, 기업환경정보 공시제도 등 제품 및 기업의 정보 공개 강화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신의순, 2008).

소비주체의 측면과 연관해서 언급할 의미가 있는 것은 '녹색소비'이다. 미래기획위원회(2009)의 자료에 따르면, 녹색소비를 하자고 하면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선뜻 자신의 생활을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한다. 웰빙 열풍과 함께 등장한 유기농, 환경친화적 제품들은 모두 고가이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삶은 불편하고 힘들어 보인다. 그리하여 사람들 사이에는 은연 중 녹색의 삶이 '자연을 위해 인류 문명의 편리함을 희생하는 삶' 정도로 보는 시각들도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녹색소비는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삶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를 내다보면서 더 늦기 전에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소비란 환경운동이기 이전에 '위기관리를 위한 투자'이며, 훨씬 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녹색소비를 만들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은 가격 신호이지만, 이것으로 변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환경과 미래경제를 위해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사회분위기와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큰 저항에 부딪히거나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생활문화와 가치관 전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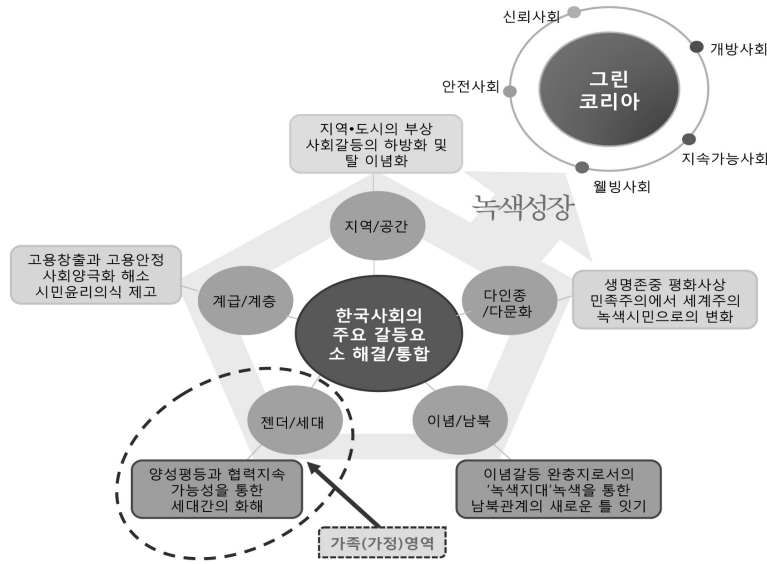
가족이나 가정은 역시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가족 내에서 특히 주부들은 친환경생활방식이나 소비방식이라는 가치관의 강력한 전파자이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그리고 이 분야에서 앞서 가는 주부들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예컨대, '에코 패밀리 코디네이터(eco family coordinator) 제도' 같은 아이디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에너지와 물 사용, 폐기물 배출, 상품 구매 및 사용습관 등을 진단해 가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교육해 주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지역의 시민단체나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정을 '저탄소 에코 패밀리 시범가정'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탄소은행제도'도 제시되고 있다. 일부시중은행에서 이를 실시 중인데 참여가정이 전력과 가스 소비를 줄이면 그만큼을 이산화탄소 포인트로 확산해 적립해 주는 것이다.

녹색생활양식의 주체로서 가족이나 가정을 언급할 때 함

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생활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아나바다운동(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이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녹색생활양식과 관련해 살피볼 생활문화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정지원, 2009).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표적 사례로 '에코맘(ecomom)'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에코맘은 가사나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녹색어머니들을 지칭한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천운동으로 이끌었으며, 이러한 실천운동은 21세기 들어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개인적 관심사 차원에서 벌이던 환경운동이 점차 지역단위의 연대를 맺어 실천력을 강하게 갖기 시작하는 문화현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운동은 20세기 미국의 환경운동이 법이나 제도 정비 등 거시적 접근으로 시도했다가 별 성과가 없었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발단하여, "지구를 지키는 일은 집에서부터(Saving earth begins at home)"이라는 슬로건으로 생활 속 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킨 것이다. 이 운동에서는 지역단위 혹은 가상공간인 greenand cleanmom, blotspot.com, ecochick.com 등의 인터넷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매개로 하여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친환경 경적 생활방식을 공유하고 실천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9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에코맘연대(Ecomom Alliance)'는 가정 내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친환경 세제 이용 등 조금만 신경 쓰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집안일들을 통해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에서는 생활 속 녹색문화운동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전거 이용과 친환경 에코쇼핑백을 사용하는 운동을 거론할 수 있다. 특히 주부가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구니가 부착된 가벼운 자전거는 '마미차리'(엄마를 일컫는 '마미'와 자전거를 일컫는 '차링코'의 합성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많이 애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쓰레기제로운동'이라는 실천운동이 있다. 독일 가정에서는 쓰레기통이 매우 크고 여러 개로 나눠져 독일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플라스틱과 종이류 쓰레기, 그리고 음식쓰레기로 분류하는 방법을 배운다. 재활용쓰레기는 그 용도에 맞는 재활용기에 재료별로 버리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용기에 버려 거름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무의미하게 버리는 쓰레기를 없앤다는 의미의 생활 속 실천운동이라고 할 것이다.

녹색생활양식의 주체로서 가족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강조되어야 할 것이 환경교육의 문제이다(녹색성장위원회 외 부처, 2009). 이는 물론 학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실제 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8)을 기초로 저자 재구성.

〈그림 2〉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상생활에 기반을 둔 환경교육은 가정에서의 교육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환경교육도 이제까지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전개된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이러한 입장에서는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이 필요하다는 가치관을 어린 세대들에게 심어줄 것을 강조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의 재앙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환경윤리에 기반 한 교육을 실시하여 후속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사회의 의미와 가치를 내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노희정, 2006).

2. 가족관계에서의 녹색생활양식의 구현

녹색성장은 가족관계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견 이는 어떠한 상관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듯 보인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처럼 녹색성장의 의미에 사회적 정의와 발전(사회적 형평성, 권한 부여 등), 삶의 질 요소를 포괄하여 바라보게 될 때, 이는 가족관계와 연관시켜 논의할 내용들이 상당히 풍부해진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우리 모두가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하며,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상호통합을 지향한다고 밝힌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담론은 시대정신을 담는 거대담론인 동시에 생활로 파고드는 미시담론으로 보고 우리의 골 깊은 사회갈등의 조절자이자,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하는 접점으로 활용

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제시되는 〈그림 2〉는 지역/공간, 계급/계층, 이념/남북관계, 다인종/다문화와 더불어 젠더/세대도 우리 사회의 주요갈등으로 설정되고, 녹색성장이 이를 통합의 차원으로 아우름으로써, 안전사회, 신뢰사회, 개방사회, 지속가능사회, 웰빙(참살이)사회로 지향해 감을 보여준다.

여기서 물론 다른 영역들도 가족이나 가정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젠더/세대의 문제는 특히 가족관계에서의 영역과 관련성이 크고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시켜 볼 때, 녹색성장은 젠더와 세대를 아우르는데,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녹색성장의 출발점이 가족과 가정에 기초한 일상생활이기 때문이다. 이는 토마스 프리드만이 말하는 '가정에서의 국가건설(nation building at home)'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녹색성장은 젠더 및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정치 내지 미시정치의 영역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녹색성장을 가족관계에 적용시키는 논의는 남녀간과 연관해서는 양성 평등과 친밀성 및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세대간과 연관해서는 세대 관계의 민주화 등을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양육가치의 전환이나 지역 사회와의 연계 등도 이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녹색성장은 남녀 간의 평등과 협력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남녀가 중심축이 되어 가정을 이끄는 가족관계에서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여기에서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에 기초한 남녀관계를 반성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보다 바람직한 친밀성의 관계를 탐색한다. 즉 양성간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권리 존중에 기반 한 성숙한 남녀관계의 형성을 지향한다(Beck & Beck-Gernsheim, 1999; Beck-Gernsheim, 2000; Beck-Gernsheim, 2005; Giddens, 1996). 이와 더불어 가족과 모성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며, 특히 아이를 소유의 대상으로서 아니라 삶의 내용을 채워주고 의미를 추구하게 하는 존재로 실존적으로 바라보는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Beck-Gernsheim, 2000).

둘째, 녹색성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세대갈등을 치유하는 데도 유용하다. 현 세대와 미래세대는 각각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의무와 이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세대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중심으로 하여 세대간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세대 서로간의 화해와 공감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이러한 세대통합의 바탕에는 세대간 민주화의 가치관이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양육과 관련해서 녹색성장은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발전, 성장, 속도의 발전 모형은 생활문화를 통해 인간관, 특히 자녀관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엄친아' 담론처럼 자녀 고유의 존재성에 대한 존중은 없이 끊임없이 자녀를 남과 비교하면서 자녀가 갖는 고유의 개성이나 욕구 등에는 무관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전의 생활문화 패러다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발달에 대해 끊임없이 속도 강박관념을 갖도록 한다. 계절은 아동은 내면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성숙 리듬에 따라 성숙, 성장해 간다고 하였으나 우리사회에서는 자녀 개인의 내적 리듬을 관찰하거나 주목하지 않으며, 획일적으로 앞서가는 학습 양식만 강조한다. 그렇다보니 교육의 참된 의미는 간과되면서 항상 속도전에서 표피적인 지식만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행되는 비교 과정에서 자녀의 존재를 평가하는 기준은 오로지 학교 성적, 좋은 대학, 조건 좋은 결혼 등 획일화된 사회 가치이며, 자녀의 개성이나 전문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력 질주를 하게 만든다.

하지만 아동은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이 양육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아동을 자신의 소유나 욕구 실현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이어갈 자원, 삶의 풍요로움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가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가치관의 변화이다.

넷째, 녹색성장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조된다. 지역사회는 개인-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이

된다. 새로운 녹색 생활양식 패러다임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생활양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의 장과 합의의 장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를 통해 가족은 침울하고 개별화된 소외나 폐쇄적 이기주의를 벗어나 개방되고 확산된 돌봄과 소통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면서 사적 가족의 부담감을 나눌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논의는 그 중요성을 더해간다. 보통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심리적 연대감을 가지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윤준상, 최창욱, 1998). 이러한 지역사회는 개인과 가족이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場)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지역사회를 통해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홍승아 외, 2007).

V. 결론을 대신하여: 가족과 녹색생활양식의 비전

현재 국정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가족 영역을 연결시켜 실천적 접점을 탐색하고자 의도했던 본 논문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이 등장하는 사회적 배경, 녹색성장정책과 생활혁명의 관련성, 녹색생활양식을 실현하는 가족의 실천적 역할과 위치를 다루어보았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정책은 현재 기후, 사회, 경제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의제이며 따라서 각국이 앞 다투어 추진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정책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일상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변화, 즉 생활혁명을 요구한다. 셋째, 이러한 생활혁명의 추진은 녹색생활양식에 반영되는데 가족이나 가정은 이러한 녹색생활양식을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과 연관된 녹색생활양식의 몇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녹색생활양식의 구현을 위해 가족에서 이루어져야 할 조건을 제언하는 성격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루어질 상황에 대한 전망의 성격도 동시에 지닐 수 있다.

첫째, 가치지향의 변화이다. 이상적인 녹색성장은 우리 삶의 방식 전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전제로 한다. 인간다운 삶의 향유, 삶의 질 향상은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그런라

이프(Green Life)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 자본주의나 근대주의가 내몰아왔던 가치들을 총체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것을 요구한다. 문명, 발전과 근대화, 양적 성장, 소비, 소유, 효율, 성공, 권력, 경쟁 등의 가치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였으나 근원적 성찰을 요구하는 녹색생활양식에서는 바로 이러한 가치들의 반성적 성찰에 기울어진다. 그리하여 자연, 환경과 생태 고려, 질적 성장, 내핍, 존재, 느낌, 안정, 휴식, 자기실현, 건강, 내면 성찰, 공존, 상생 등을 다시 되새겨보고 그 의미들을 되짚어보는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의 가치 지향에서는 웰빙(참살이)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육체적 건강이나 내면의 행복, 슬로라이프, 문화적 삶 등을 구성요소로 한다. 또한 녹색성장은 환경, 생태, 문화, 정신 등의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런 점에서 녹색생활양식은 생태주의나 탈소비주의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녹색생활양식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가족적인 차원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반성을 시도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느림’, ‘삶의 여유’, ‘관계의 의미’ 등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비로소 안정되고 풍요로운 그린라이프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인간 및 가족관계에서의 의미 재구성이다. 20세기 환경 위기를 낳은 지배적 가치체계는 발전중심주의적 가치체계이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인간관계에도 작용하여, 본인을 제외한 가족원이나 타인은 오직 본인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등 인간을 도구적·수단적 목적에 부합하는 존재인가의 관점에서 보며, 관계의 의미도 종종 그와 같은 관점에서 찾아왔다. 특히 생활세계에 체계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자본 중심의 논리는 그대로 가족관계 내에 투영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양상은 물질화 현상과 결합되어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족만이 생존의 안전망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자 아빠’, ‘부자 부모’, ‘부자 되세요’ 등의 물질적 가치 추구를 드러내 놓고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녹색 생활양식으로서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이와 같이 인간을 도구적으로 보며, 자신의 이익 목적에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며,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관점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이나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개인적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수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셋째, 다양성의 수용과 통합이다.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우리 사회의 사회인구학적 지형은 조금씩 변모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뿌리 깊게 지켜오던 단일민족 이데올로기, 순혈주의 의식이 무너지고 있으며, 바야흐로 ‘다문화시대’의 도래는 현재 우리 사회가 대면하고 있는 가장 획기적인 정치·사회적 의제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는 다문화사회이며, 다양한 배경과 문화, 자질을 가진 사람들의 공존을 요구한다. 녹색생활양식으로서의 패러다임에서는 바로 이러한 다양성에 주목하고 이것이 차별이나 갈등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어울림, 정체성이나 존재의 부각, 풍요로움의 향유로 이어지는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녹색생활양식의 관점에서 볼 때, 다양성이나 차이는 갈등의 근원으로서가 아니라 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넷째, 참여정신과 생활문화의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마음가짐이자 행위의 습관이며, 동시에 집단이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치과정에 의미 있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책임성 있는 통치유형(또는 거버넌스)이다(곽창규, 손석호, 박병원, 2004). 녹색생활양식에서는 이러한 참여와 생활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거버넌스의 형태를 취한다(김정해, 2009). 거버넌스는 자발성, 상호협력과 조정, 소통과 신뢰의 정신이 살아있는 통치유형으로, 여기에는 각계 각층이 포섭되지만, 실상 시민사회의 참여를 주축으로 한다. 녹색성장과 관련성이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핵심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구축하는 가장 민주적인 형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개인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가정의 단위로서 시민단체나 운동과 연계하여 바로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공동체성의 회복이다. 노동시장, 가족, 개인의 가치관 등이 변화하면서 종래 사적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돌봄노동이 더 이상 개별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과 연결되는 사적 가족 내 심리적·물리적 부담이 결국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는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를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은 녹색 생활양식과 가족의 논의에서 명분적·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가족을 연계해서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적 속성, 혈연 중심의 사적 가족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 중심의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논의 등이 시도되고 있다. 녹색생활양식은 지역사회 범위 내에서 인간관계를 마이너스 논리가 아니라 플러스 논리로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마련과 성숙한 시

민의식을 그 기반으로 한다. 조한혜정(2007)은 위험사회에서 살아남는 방안으로서 '다시 마을이다'라는 테제를 모색한다. 현재와 같은 후기근대적 상황에서는 경비원이 있는 성벽을 두른 아파트가 아니라 마을, 소비를 과시하기 위한 이웃이 아니라 상호호혜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이웃의 형성이 필요하다. 인간이라는 생물적 존재의 생존은 기본적으로 소통과 나눔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미래의 주거는 바로 이런 삶의 기본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고, '근대주의'를 넘어서 대안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점에서 사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돌봄' 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관심사이기도 하면서 현 정부의 기초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족 영역에서의 이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논의와 개입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부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성과와 의의는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 기본 정신과 추진성과가 가치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정신적인 측면과 가장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생활적(물리적)인 측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때, 가족이나 가정은 바로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강조한 것에 있다고 생각된다. 가족학 연구에서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된 본격적이고 체계화된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시론적, 탐색적 수준에서 전개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가족학 분야가 저탄소녹색성장에서 연구적 관심사를 풍부하게 끌어낼 수 있을 가능성과 이 주제와 관련된 후속담론 도출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녹색성장과 가족을 연결시키는 연구의 불모를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타개하려 시도했던 본 논문에서의 한계는 보다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후속 연구들의 정교화에 의해 보완·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강성진(2009a).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산업발전 전략.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 전략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 강성진(2009b).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녹색성장. **미래정책 포커스, 2009년 7, 8월호**, 28-29.
- 경향신문(2009. 10. 10.). 마음의 병·'우울증' 찬바람 불면 더 우울. http://news.khan.co.kr/kh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090400005&code=940601에서 2009년 10월 15일 인출.
- 곽창규, 손석호, 박병원(2004). **유엔미래포럼 UN 미래보고서**. 서울: 매일경제 신문사.
- 권순우, 김선빈, 김종년, 박현수, 배영일, 복득규(2008). **SERI 전망: 저탄소·녹색시장 시대를 대비한 녹색경쟁력 확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2009). 2009. 2. 25 인출.
- 국무회의의 보고자료(2008). 2008. 9. 17 인출.
- 김은경(2009).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허구성: 철학의 부재로 인한 낮은 일자리, 환경 파괴, 경제적 비효율. 한국미래연구원 뉴스레터 제1호.
- 김정혜(2009). 상호협력과 조정, 녹색 거버넌스. **미래정책 포커스, 2009년 7, 8월호**, 44-45.
- 김창호(1996). 하버마스의 체계와 생활세계: 이원적 전략의 이론적 의의. 김재현, 김창호, 박영도, 선우현, 양운덕, 이삼열 외 6명 저.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주제와 쟁점들**(pp. 177-200). 서울: 나남출판.
- 노희정(200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윤리교육. **환경철학, 5**, 1-32.
- 녹색성장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2009). **녹색성장교육 활성화방안**. 2009. 8. 24.
- 문화체육관광부(2008). **녹색부국으로 가는 길**.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미래기획위원회(2009). **녹색성장의 길**. 서울: 중앙북스.
- 배순영(2009). 녹색생활혁명과 가정.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제3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 배순영, 고은경(2009). 대한민국 소비자리더 110명의 녹색성장·녹색소비 의견조사. 녹색성장과 소비자의 역할 및 과제. 한국소비자원 세미나 자료집.
- 신의순(2008).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과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 전략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심포지엄 자료집.
- 심영희(1979). 비판이론의 사회학적 의미: 하버마스의 왜곡된 의사소통의 이론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11**, 105-121.
- 심영희(1996). 시간문화와 여성: 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삶에 나타난 전통, 현대, 탈현대. **한국여성학회지, 12**(2), 1-41.
- 연합뉴스(2009. 7. 6.). <그래픽> 국가별 행복지수(HPI) 순위.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view.html?cateid=100002&newsid=20090706152709229&p=yonhap>에서 2009년 8월 25일 인출.
- 윤순진(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제. **ECO, 13**(1), 219-266.
- 윤준상, 최창욱(1998). 지역사회주민의 지역사회친밀도와 관련 변인. **한국농촌지도학회지, 5**(1), 113-122.

- 이상현(2008). '저탄소 녹색 성장'의 특징과 문제점. 환경과 생명, 2008년 겨울호, 110-122.
- 임현진, 이재열(2006). 한국사회의 역동적 전환. 임현진, 이재열, 전광희, 조명래 공저.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pp. 11-48). 파주: 나남출판.
- 정지원(2009). '세계는 지금 녹색 신드롬': 작지만 위대한 생활 속 환경 살리기. **남양주시 퀘:한 도시**, 2009, 35, 5-9. 경기도: 남양주시.
- 조한혜정(2007). **다시 마을이다: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홍승아(2009). 젠더 관점에서 본 녹색성장.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할. 서울: 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 김혜영, 류연규, 소마나오오, 조순주, 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Beck-Gernsheim, E.(2000). *Die kinderfrage: Frauen zwischen kinderwunsch und unabhangigkeit*. Munchen: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내 모든 사랑을 아이에게: 한 조각 내 인생과 아이문제**. 이재원(역). 서울: 새물결. (1988, 1997년 원저발간)
- Beck-Gernsheim, E.(2005). *Was kommt nach der familie?: Einblicke in neue lebensformen*. Munchen: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박은주(역). 서울: 새물결. (1998년 원저발간)
- Beck, U., & Beck-Gernsheim, E.(1999).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사랑, 결혼, 가족,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근원적 성찰**. 강수영, 권기돈, 배은경(공역). 서울: 새물결. (1990년 원저발간)
- Friedman, T. L.(2009). *Hot, flat, and crowded*. N.Y.: Picador. **코드 그린: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 최정임, 이영민(공역). 서울: 21세기 북스. (2008년 원저발간)
- Giddens, A.(1996).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y*. Cambridge: Polity.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 황정미(공역). 서울: 새물결. (1992년 원저발간)
- Norberg-Hodge, H.(2007). *Ancient future: Learning from Ladakh*. **오래된 미래**. 양희승(역). 서울: 중앙북스. (1992년 원저발간)
-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suicide_rate.

접 수 일 : 2010년 1월 17일

심사시작일 : 2010년 2월 5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1월 29일